

# 광주시민 100명 중 9명 주식투자

## 광주·전남 23만8천명...전년보다 22% 늘어

## 전국 주주 최다 보유 하이닉스 1위·기아 2위

지난해 광주시민 100명당 9명꼴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이어 실질 주주가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는 23만8299명으로 2010년 19만4717

명보다 22.3%나 급증했다. 소유주식도 17.7% 증가했다.

주식투자자가 수가 급증한 것은 고물가와 저금리 기조로 주식투자 외에 돈을 벌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별 연령대는 40대가 7만7933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

어 50대(29.7%), 30대(17.4%), 60대(11.3%) 순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명예퇴직을 앞두거나 일선에서 물러난 중장년층이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주식투자자 수가 13만2023명으로 100명당 9명이 주식에 투자했다.

지역별로는 북구(4만1645명)가 가장 많았고 서구(3만4485명), 광산구(2만6654명), 남구(1만7406명), 동구(1만20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0만6276명이 주식투자를 했으며, 여수(2만3960명), 순천(2만1235명), 광양(1만7991명), 목포(1만

462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광주·전남 지역 내 실질주주 수가 2000명 이상인 법인은 모두 15곳이었으며 금호산업(4만4279)이 가장 많았고, 금호타이어(2만3189), 파우(1만7327), 대우에이텍(1만3349), 대우신소재(1만443), 비엔비서원(1만185), 씨엔중공업(7410), 지엔알(6851) 등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는 주주 수가 32만2362명으로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닉스반도체(39만1941명)와 함께 실질주주 수가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정상화 '종방' 6·25로 다시 폐허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2)

### 전남방직 서울이전 반대운동 ⑤

#### ▲공장을 재건한 김형남

미 군정에 의해 종방 광주공장 관리인으로 임명된 김형남은 미국 웨슬러인 대학을 나온 엘리트 공학도로서 당시 흔치 않았던 미국통이었다. 그때 한국에 머물렀던 미군은 통역요원부터 군정요원까지 기초적인 영어실력만 가졌다대 때

서 속에서 박무길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결속력과 생존을 위한 재건인지 그리고 김형남의 인간적인 신뢰성과 공학도로서의 탁월한 경영능력 등에 힘입은 것이라 할 것이다.

제조업 분야의 94%가 일본인 자본이었고 기술자의 90%가 일본

격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고 원면과 원사 등 원부자재와 직포 재고가 모두 뒀다.

당시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제복구비상대책위원회가 복구자원을 요청했으나 전시장황에서 이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들이 하나, 둘씩 복귀하면서 공장재건운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폭격으로 인해 고철이 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쓸만한 부품을 가려내고 새로 만들어야 할 부품을 근로자들이 치수와 모양을 그려 화천기공사와 남산 선반에서 밤을 세워가며 만들어냈다.

이렇게 시작된 재건운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1년 동안 지속된 끝에 1951년 9월 드디어 부분적으로나마 공장을 가동하게 됐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수작업으로 6000대의 정방기를 조립해 냈으며 폭격을 면한 식당건물에 정방기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공장은 생산과 재건을 병행하면서 정상화의 길을 찾게 됐다.

1951년 11월 3일에는 김형남 공장장이 그동안 추진해 온 종방 광주공장의 귀속재산 처리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게 돼 김형남 명의의 공장이라 불렀다.



위중 (인문인)

### 동력실 등 방직기 90%·공장 80% 불타

### 1년만에 재건...공장장 김형남 넘겨받아

거 거울했다. 이들 주변에는 미 군정이 줄을 서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하는 모리배들로 들끓었다. 특히 귀속재산(패전국 일본의 재산) 가운데나 산업시설 관리권을 둘러싼 모리 행위가 극성을 부렸다.

그는 노사화합과 공장재건을 위한 상호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첫 책임자로서 기술교육에 전념해 1945년 말에는 일본인 기술자 없이 기술자집이 가능하게 됐고 거의 모든 공정이 정상 가동됐다. 이렇게 해서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될 무렵에는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뤘고 생산량도 일제 당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는 광복 직후의 혼란과 무질

인이었던 광복 직후의 상황하에서 종방 광주공장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를 되찾게 된 것은 우리 산업사에 빛나는 금자탑으로 남을 일이다.

#### ▲잿더미가 된 공장

1948년을 고비로 안정기반을 다져가던 종방 광주공장은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로 또다시 시련을 맞았다. 공장은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근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1950년 10월 광주가 수복되자 전화가 휩쓸고 간 공장의 참혹한 모습이 드러났다. 공장가동용 핵심인 원동부 건물을 비롯해 방직기의 90%와 전 공장의 80%가 폭

## 광주시-농협 광주본부

### 지자체 협력사업 의결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가 광주시와 손을 잡고 지역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본부는 지난 13일 광주지역 농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광주시와 농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2년 지자체 협력사업을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지자체 협력사업 건으로 △광주시·광산구청 3억8100만원 △농협중앙회 1억3000만원 △지역농협 2억5300만원 △농업인 8900만원 등 총사업비 8억53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무등골 유령이살계약재배 지원사업, 꽃주공 동선별기 구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송기희기자 song@kwangju.co.kr



봄 멋쟁이 필수품

1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잡화매장이 선글라스 코너를 열고 꾸찌, 디올, 샤넬, 에스까다 등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 봉선·주월 광명메이루즈 입주자 당첨자 발표

봉선·주월 광명메이루즈(출력순서: 주택형별, 동·호순)

일련번호	주택형	동-호	성명	생년월일
01	0846448	0101-0202	김재준	79.03.26
02	0846448	0101-0203	임종훈	68.02.09
03	0846448	0101-0302	임병양	45.09.20
04	0846448	0101-0303	정재홍	72.05.16
05	0846448	0101-0402	임인순	59.10.14
06	0846448	0101-0403	임정환	67.01.13
07	0846448	0101-0502	김정호	81.12.10
08	0846448	0101-0503	정다운	78.11.16
09	0846448	0101-0602	나병오	75.05.05
10	0846448	0101-0603	정우연	75.07.10
11	0846448	0101-0702	이진복	66.06.04
12	0846448	0101-0703	김광자	49.01.23
13	0846448	0101-0802	구신자	75.05.23
14	0846448	0101-0803	신상철	69.04.12
15	0846448	0101-0902	전영신	72.12.21
16	0846448	0101-0903	박차이	75.03.21
17	0846448	0101-1002	김시진	75.11.24
18	0846448	0101-1003	서정재	71.10.20
19	0846448	0101-1102	이은영	66.07.29
20	0846448	0101-1103	김근재	37.11.20
21	0846448	0101-1202	김영명	82.06.19
22	0846448	0101-1203	신태식	48.06.14
23	0846448	0101-1302	이준석	81.07.25
24	0846448	0101-1303	김지현	74.04.19
25	0846448	0101-1402	황광호	60.06.19
26	0846448	0101-1403	황수연	81.08.05
27	0846448	0101-1502	서오석	58.12.08
28	0846448	0101-1503	박상철	75.07.02
29	0846448	0102-0202	문후화	85.05.12
30	0846448	0102-0203	최희복	75.02.16
31	0846448	0102-0302	박경미	74.12.25
32	0846448	0102-0303	망우호	83.05.02
33	0846448	0102-0402	송우호	77.12.27
34	0846448	0102-0403	조정연	79.04.10
35	0846448	0102-0502	홍재홍	65.12.30
36	0846448	0102-0503	김정희	72.01.21
37	0846448	0102-0702	송우중	33.11.08
38	0846448	0102-0703	김형수	67.08.19
39	0846448	0102-0802	김미석	57.11.08
40	0846448	0102-0803	이부봉	51.12.22
41	0846448	0102-0902	유규관	48.04.08
42	0846448	0102-0903	이형호	65.09.17
43	0846448	0102-1002	문홍필	80.06.07
44	0846448	0102-1003	김태일	72.03.02
45	0846448	0102-1102	김신영	78.10.20
46	0846448	0102-1103	나은호	84.06.13
47	0846448	0102-1202	최희나	83.11.11
48	0846448	0102-1203	김지희	81.02.03
49	0846448	0102-1302	김영이	69.01.15
50	0846448	0102-1303	전성영	84.01.18
51	0846448	0102-1402	조영희	63.09.06
52	0846448	0102-1403	노희우	84.03.07
53	0846448	0102-1502	이재민	84.08.11
54	0846448	0102-1602	김정두	65.12.10
55	0846448	0102-1603	문신아	81.03.15
56	0846448	0102-1702	이규남	71.05.05
57	0846448	0102-1703	이노일	70.11.25
58	0846448	0102-1802	정영민	48.12.30
59	0846448	0102-1803	임소연	81.08.07
60	0846448	0102-1902	이영란	45.04.14
61	0846448	0102-1903	김민하	71.04.05
62	0846448	0102-2002	오은희	82.09.01
63	0846448	0102-2003	전유지	74.02.08
64	0846448	0102-2102	남수민	67.12.22
65	0846448	0102-2103	임유미	70.09.14
66	0846448	0102-2202	김영남	53.12.10
67	0846448	0102-2203	이은숙	43.10.01
68	0846448	0102-2302	최희정	72.06.14
69	0846448	0102-2303	조진호	55.07.19
70	0846448	0102-2402	김민덕	75.07.08

일련번호	주택형	동-호	성명	생년월일
71	0846448	0102-2403	변정숙	40.04.23
72	0846448	0102-2502	박훈재	78.10.13
73	0846448	0102-2503	이부덕	57.04.18
74	0846448	0102-2602	김미라	71.06.22
75	0846448	0102-2603	이신철	67.11.16
76	0846448	0102-2702	김영우	81.01.24
77	0846448	0102-2703	문대성	77.08.16
78	0846448	0102-2802	서정호	73.01.24
79	0846448	0102-2803	박영호	59.02.08
80	0846448	0103-0202	최영은	84.02.20
81	0846448	0103-0203	정승택	70.11.07
82	0846448	0103-0302	정민희	75.11.12
83	0846448	0103-0303	서세원	70.03.30
84	0846448	0103-0402	문영미	68.09.19
85	0846448	0103-0403	조은경	47.08.12
86	0846448	0103-0502	신승관	71.03.07
87	0846448	0103-0503	전우종	74.01.13
88	0846448	0103-0602	이정희	76.08.21
89	0846448	0103-0603	박상진	83.07.18
90	0846448	0103-0702	이윤진	79.10.08
91	0846448	0103-0703	하인영	74.07.24
92	0846448	0103-0802	문보철	79.02.02
93	0846448	0103-0803	노은희	81.09.14
94	0846448	0103-0902	서세호	70.08.28
95	0846448	0103-0903	박옥진	81.03.27
96	0846448	0103-1002	정승훈	63.07.16
97	0846448	0103-1003	박지영	78.03.25
98	0846448	0103-1102	김지현	74.02.13
99	0846448	0103-1103	전영애	58.08.12
100	0846448	0103-1202	오영호	74.06.11
101	0846448	0103-1203	김진자	49.10.02
102	0846448	0103-1302	황영복	72.09.13
103	0846448	0103-1303	신영숙	48.04.05
104	0846448	0103-1402	조정연	73.08.03
105	0846448	0103-1403	이경규	59.01.18
106	0846448	0103-1502	장영미	74.03.02
107	0846448	0103-1503	김재현	72.01.28
108	0846448	0103-1602	김지현	81.12.18
109	0846448	0103-1603	조영희	80.12.13
110	0846448	0103-1702	문정호	62.03.02
111	0846448	0103-1802	김정호	67.07.07
112	0846448	0103-1803	문우철	76.12.05
113	0846448	0103-1902	김영삼	75.08.10
114	0846448	0103-1903	김태일	79.01.08
115	0846448	0103-2002	조원호	84.05.14
116	0846448	0103-2003	김두광	59.08.29
117	0846448	0103-2102	곽민규	79.06.02
118	0846448	0103-2103	박희주	61.08.10
119	0846448	0103-2202	김주은	84.10.21
120	0846448	0103-2203	이지은	80.06.21
121	0846448	0103-2302	나희남	89.09.15
122	0846448	0103-2303	김지현	74.01.28
123	0846448	0103-2402	박성훈	71.07.14
124	0846448	0103-2403	김정호	63.04.03
125	0846448	0103-2502	김신영	76.12.11
126	0846448	0103-2503	박진영	87.02.03
127	0846448	0103-2602	오상혜	45.09.11
128	0846448	0103-2603	맹성미	58.01.12
129	0846448	0103-2702	오기숙	61.07.19
130	0846448	0103-2703	유광호	73.01.20
131	0846448	0104-0202	박정란	56.05.20
132	0846448	0104-0203	황우진	73.09.26
133	0846448	0104-0302	오형선	62.05.13
134	0846448	0104-0303	김재동	52.02.08
135	0846448	0104-0402	한정란	73.05.02
136	0846448	0104-0403	이신영	77.10.12
137	0846448	0104-0502	박철	71.04.05
138	0846448	0104-0503	박성민	65.01.15
139	0846448	0104-0602	박영식	86.06.16
140	0846448	0104-0603	오민영	64.04.15

일련번호	주택형	동-호	성명	생년월일
141	0846448	0104-0702	이정연	